Life p/16



절전형 똑똑 가전제품 가이드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30일 월요일 제3003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엄마 손잡고 뮤지컬 나들이



北 동해상 미사일 발사… 南 제2연평해전 기념식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2주년 기념식에서 해군 장병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다음 달 3~4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손목 전쟁'… 스마트 시계 "째깍째깍"

삼성전자 잇단 신제품 공세로 시장점유율 70%
LG전자·모토로라 출사표…애플도 10월에 출시

전 세계 IT업계에 '손목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애플·구글 등이 스마트시계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이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승부를 완벽히 가리지 못한 상태다. 특히 스마트시계의 승자가 차세대 IT업계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시장까지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제3차 스마트대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시계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은 삼성전자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70%다. 지난해 9월 갤럭시기어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후속작인 기어2와 기어핏을 연달아 내놨다. 지난 25일에는 구글 개발자대회(I/O)에서 구글의 착용형(웨어러블) 단말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채택한 '기어 라이브'를 공개했다. 1.63인치(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한 기어 라이브는 심박센서, IP67 수준의 생활 방수·방진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199 달러(약 20만2000원).

LG전자도 'G시계'를 선보이며 스마트시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1.65인치(IPS LCD)를 탑재한 G시계는 400mAh 배터리가 장점이다. 24시간 내내 화면이 꺼지지 않는 '올웨이즈 온' 기능이 들어 사용하기 편하다. 가격은 229 달러(약 23만3000원).

올해 매출 700만대 목표 2017년 5천만대 넘을 듯

한때 구글의 자회사였던 모토로라도 올 여름에 '모토360'을 내놓을 예정이다. 모토360은 다른 스마트시계와 달리 원형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대만의 IT업체인 에이수스도 오는 9월 스마트시계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도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다.

'거함' 애플은 오는 10월 '아이워치'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이워치'는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8에 추가된 헬스키트 플랫폼, 헬스 앱과 연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스기능을 시험하고 있어 화제다.

◆2017년 5510만대 시장 규모

IT업체들이 이처럼 스마트시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올해 700만대 규모로 예측되는 시장규모가 내년 2340만대, 2017년 5510만대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계가 TV, 냉장고, 자동차 등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스마트시계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통해 헬스·유통·지도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는 것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태블릿에서 더 이상 혁신을 기대하기 힘든 IT업체들이 스마트시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스마트시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면 최근 IT업계의 화두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시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계 간의 사활을 건 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사고

메트로신문 지령 3000호 기념 독자 大이벤트

총 300명에게 디지털카메라 등 14개 품목 1300만원 상당

메트로신문이 6월 25일 지령 30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31일 한·일 월드컵이 개막됐던 날 국내 최초의 무료 종합일간지로 출발한 메트로신문은 지난 13년간 독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언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메트로신문사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령 3000호 발행기념 독자 퀴즈 大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총 300분께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퀴즈 문제 : 2014년 6월 25일 지령 3000호를 맞이한 메트로신문의 창간일은 언제일까요?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방법
1.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응모
2. 메트로신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metroseoulnews)에 "좋아요"누르기

▲응모기간 : 2014년 6월 25일(수)~7월 1일(화)까지 1주일간
▲당첨 발표 : 2014년 7월 3일(목)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등)
▲상품 : 한국후지필름·파나소닉코리아(디지털 카메라 각 1대), 더케이호텔 뷔페이용권(2매·10명), LG생명과학 리튠(트리플에이·50명), 신동와인(로즈마운트 오·50명), 풀무원(야채믹스·10개入·5명), KFC(3만원 상품권·17명), 팔도(비빔면·20개入x2세트·10명), 삼광글라스(글라스락 정사각 5종 세트·20명), 일동후디스(단호박 마차 세트·20명), 풀무원(나또 2호세트·5명), 한국도자기(에코머그세트 2개入·10명), 락앤락(비스프리 아이러브 삭커 한정판 물병·50명), 탐앤탐스(허니버터브레드+아메리카노 2잔 세트·모바일쿠폰·50명)
▲수령방법 : 당첨자 발표 시 안내

metro



방북하는 스님들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리는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재에 참석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이날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기초연금 첫 지급

기초노령연금 받으면 별도 신청 필요없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하는 노인들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격 심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7·8월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406만 명에게는 달마다 20만원이, 41만 명에게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뉴스&뉴스

세월호 수색 지원 내달부터 대폭 축소

●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다음달부터 세월호 수색 잠수사와 해군함정 등 인력과 장비를 대폭 축소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고대책본부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목표로 수중탐색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연장 여부는 유가족 반응과 탐색결과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누리 전대 당권주자 3일 후보등록

●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결정 지을 7·14 전당대회가 내달 3일 후보 등록 후 공식 열전에 들어간다. 서청원, 김무성 의원의 2파전 속에 이미 10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3일부터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펼친다.

선도대학 지원대상 13개교 신규 선정

● 올해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13개 대학이 새로 뽑혔다. 수도권 대규모 대학으로 성균관대·중앙대가, 중소규모는 가톨릭대·광운대·서울여대 등 모두 5개 대학이 뽑혔다. 지방에서는 대구가톨릭대·조선대·충남대가 대규모 대학으로, 중소규모로는 건양대·대전대·동명대·목원대·한림대 등 8개교가 선정됐다.

서울시, '찾아가는 공유마당' 행사

서울시는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노원·마포·서초·영등포 등 4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유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유에 관심있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유의 필요성, 다양한 국내외 공유 사례와 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부스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공유 관련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윤종수 변호사·서정욱 교수 등이 각기 기조강연자로 나서서



'공유가 바꾸는 세상과 미래'를 주제로 생활 속의 공유에 대해 강연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공유허브 홈페이지(http://sharehub.kr/abou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北 미사일 2발 또 동해상 발사

올해 벌써 11차례… 시진핑 방한 앞두고 무력시위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4시50분과 4시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5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은 동해 동북쪽 공해상으로 날아갔다"며 "북한은 미사일 탄착지점 인근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 연장 300㎜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3발을 지난 26일 발사한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올들어 11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탄도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4번째다.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인 스커드-B와 사거리 500㎞인 스커드-C,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D와 개량형인 스커드-ER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3~4일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잘 봐 주세요" 7·30 재보궐 공천면접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9일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들이 서울 동작을 공천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GOP 총기사건 병사들 인화 문제"

한민구 후보자 청문회… 자녀 특혜 의혹 등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는 일요일인 29일 한민구(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각료후보자 8명과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를 이어간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군 내부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극소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사고 원인에 대해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인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고 후 실질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은 늦었다"고 답했다.

야당은 전역 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아들이 군 복무 기간 총 60일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점 등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개최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국회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뒤 인사청문기한(24일)을 넘기자 2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기 때문이다.

/김민준기자

방학1동 복지위, 노인 집안청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복지위원회가 최근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안청소를 실시했다.

새마을부녀회원,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집안의 쓰레기와 폐품 등을 밖으로 꺼내 분류하고 청소 등을 했다.

영등포구, 그린푸드존 점검

서울시 영등포구가 최근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60여개 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식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 및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용산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서울시 용산구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인 정현영 유니버설드림센터의 대표가 맡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청렴리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무더위 즐기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29일 오후 서울 한강 뚝섬 야외수영장에서 시민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월매출 6천만원이라더니…

매출액 부풀린 커피 프랜차이즈 부당행위 패소

커피 시장내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인 커피 프랜차이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12월 1호점을 열고 세를 확장하던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두 층짜리 점포를 열기로 했다.

본사 측은 한 달에 6000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8억6000여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2010년 6월 점포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손님은 예상 외로 적었다. 개업 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관리 비용 등을 빼면 매달 평균 1000 만원씩 손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커핀그루나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매출액 자료인데다 추정이익이라고 못 박아 말했기 때문에 A씨를 속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전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40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시장 서열에서 앞선 선발업체를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예상매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던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A씨에게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폭력사범 벌금 2배 올린다

검찰이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준)에 달하고 연간 35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준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윤다혜기자 ydh@

시의원이 5억 빚 때문에…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지난 3월 발생한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현직 시의원 김모(44)씨가 10년 지기인 팽모(44)씨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 소개로 수천억대 재력가 송(67)씨를 처음 만난 뒤 연을 이어왔다. 그러다 2010~201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송씨에게서 총 5억여원을 빌렸고, 2012년 말께 송씨로부터 "빨리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팽씨는 6·4지방선거 재선을 준비하던 김씨는 송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불안감이 커졌고,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팽씨는 처음 사주를 받은 2012년 말부터 1년여간 범행 장소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으면서도 범행을 시도하지 못하다 김씨가 "이번에도 죽이지 못하면 더는 못 기다린다"며 압박하자 결국 지난 3월 3일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준기자

편입 통한 간호사 학사학위 취득할까

Q 방송통신대 간호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간호학과는 간호인의 전문성 고양을 목적으로 계속 교육을 원하는 전문대 졸업 간호사에게 학사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원격 특별학사 편입과정입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간호학과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간호학과는 인간존중과 대상자 중심의 간호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간호실무 분야별로 최신 이론과 기술의 학습 뿐아니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대학원 진학은 물론 다양한 직종의 건강 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668-4180) /윤다혜기자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③ 간호학과



한국방송통신대 간호학과 '간호봉사단'이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자원봉사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공

헌재 "양의사 침술행위 안돼"

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적발돼 기소된 외과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음주 등 사망사고 구속수사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 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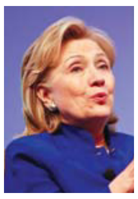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 등이다.

/김민준기자

"힐러리, 강연료 반납하시오"

美네바다대 학생회 요청… "터무니 없는 고액"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장관은 고액 강연료를 반납하시오."

28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언론에 따르면 최근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 학생회는 '빌 힐러리 앤드 첼시 클린턴 재단'에 보낸 서한에서 강연료 22만 5000달러(약 2억3000만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학 재단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는 10월 13일 이 대학 재단의 기금 모금 행사에서 높은 '몸값'을 받고 강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회 측은 앞으로 4년간 등록금이 17%오르는 상황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게 지급할 강연료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네바다대 학생회의 엘리아스 벤절룬 회장은 "대학 기금 모금을 돕는 사람은 누구든 환영하지만 강연료가 22만5000달러라면 누구든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색다른 부채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연례 게이 축제에서 꽃무늬 스커트 차림의 참가자들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집단자위권으로 전쟁 우려"

일본인 71%… 미국 주도 전투 동원 가능성 염두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으로 일본이 전쟁에 휩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일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27~28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8%, 찬성 32%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집단자위권에 관한 정부 여당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는 81%에 달했다.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구상에는 60%가 반대했다.

집단자위권 용인으로 타국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이 향상된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였다.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중국은 집단자위권이 용인될 경우 일본이 군국주의·침략주의 노선을 걷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일본인이 동원돼 희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가 이라크전이나 걸프전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5%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인도서 건물 '우르르' 잇딴 붕괴 15명 사망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28일(현지시간) 4층 주택이 무너져 1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뉴델리 북부 인더록 지역에 있던 이 건물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갑자기 붕괴했다. 주민 대부분이 집에 있던 토요일 오전에 사고가 발생, 피해가 컸다.

경찰 당국은 현재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 지역 언론은 이번에 붕괴된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되는 낡은 아파트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어진지 10년밖에 안됐다"면서 불법 증축이나 부실 자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남부 타밀나두주에서도 건설 중인 12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조선미기자

"베이비붐 세대, '가교연금' 드세요"

퇴직 후 국민연금 사이… 연금상품 선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소득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만 53세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1~63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장 10년의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해 조정되면서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늦춰졌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험업계에서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가교연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교(브리지)연금이란 은퇴 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에 다리(가교) 역할을 해주는 연금보험상품을 말한다.

신한생명의 'VIP 실버브릿지 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개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0세 남자가 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은퇴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확정형으로 연금 수령시 매년 14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가능하며 30만원 이상 고액계약과 4년 이상 장기납입계약에 대한 보험료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한화생명의 '트리플 라이프연금보험'은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고무줄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소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기은퇴 후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연금 수령을 멈췄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스톱앤드고'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창업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한화생명에서 발간하는 은퇴관련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종신연금형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사망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더드림 교보연금보험'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너스가 쌓이는 상품이다. 따라서 장기간 가입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년 기본적립액의 0.5%를 별도로 쌓아두고 5년마다 적립액에 가산해주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년 0.2%를 쌓아뒀다가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4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액을 6.8%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의 '브라보 7080 연금보험'은 중장년층이 짧은 기간 노후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매월 내는 월납 방식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제품을 혼합해 최소 3년 만에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장점이다. 40대 후반에 가입하더라도 은퇴를 즈음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시 중지도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1988.51 (-6.54)	531.43 (+1.39)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2.69 (-0.02)	1014.50 (-1.20)



'웰치스 젤리' 맛보세요 29일 롯데마트 빅마켓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웰치스 젤리'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 최종 타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40여일간 진행한 농성을 마무리 짓고 염호석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이번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수리건수가 월 60건을 초과하는 데 대해 건당 2만5000원(경비 제외)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중국 레노버 세계 PC시장 1위

중국 레노버가 세계 PC 시장 1위에 올랐다. 게임기기는 소니컴퓨터가 선두에, 풍력발전기는 덴마크 베스타스가 GE 윈드를 따돌리고 정상에 등극했다.

일본경제신문이 28일 자체 조사한 '2013년 주요 상품·서비스 점유율 조사' 결과 50개 품목 중 PC와 서버 등 5개 품목에서 선두가 바뀌었다.

PC의 경우, 레노버가 상위 업체 중 유일하게 출하량을 늘려 휴렛팩커드(HP)를 제쳤고, 서버부문은 IBM 대신 HP가 정상에 올랐다. 게임기기는 '플레이 스테이션 4'를 출시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가 닌텐도를 눌렀다. 원유수송량은 이란 국영석유화사가 선두에 올랐다.

조사결과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은 것은 28개 품목으로, 전년보다 3개 품목이 줄었다.

레노버의 사례에서 보듯이 M&A(인수합병)를 통한 점유율 확대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D램 분야에서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엘피다를 인수해 2위에 올랐다.

국가·지역별로는 미국 기업이 18개 품목, 일본 기업이 11개 품목, 유럽 기업 8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은 전년과 같은 6개 품목, 한국 기업 2개 감소한 6개 품목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삼성, 환경마크 획득 삼성전자 TV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마크를 획득하며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 제공

'내집 마련 금융지원'… 문턱 낮추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계약금 하향·발코니 확장비 등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건설사들의 금융지원이 활발하다.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을 알선해주는가 하면, 계약금을 낮춰주고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등 혜택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신규 분양 단지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일 분양홍보관을 개관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 VIEW'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외곽에 비해 비교적 분양률이 높은 서울에서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찬가지로 GS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해 최근 분양한 '상도파크자이'도 중도금 60% 무이자를 적용했다. 또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해 초기 자금부담을 낮췄고, 발코니도 무상으로 확장해준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에서 선보인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중도금 60%에 대해 30%는 무이자를, 나머지 30%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또 계약금을 1·2차로 나눠 우선 500만원만 내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27일 세종시에서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반도건설과 중흥건설도 중도금 무이자 행렬에 합류했다. 반도건설은 1-4생활권 마지막 부지인 H1블록에서 '세종 반도유보라'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카드를 내걸었다. 중앙행정타운이 인접해 부처 위치에 따라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부지 바로 앞 BRT를 통한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로또복권 제604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6	18	21	33	34	3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229,141,557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2,595,172
3등	5개 숫자 일치	1,553,01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광대역 LTE-A' 전국망 시대 열렸다

7월 1일부터… 영화 한편 다운로드 37초면 끝!

7월 1일부터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전국망 시대가 본격 열린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광대역 LTE-A'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광대역 LTE 또는 LTE-A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최대 225Mbps 속도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광대역 LTE-A가 지원되는 단말은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뿐이지만 7월부터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들도 잇따라 지원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다.

광대역 LTE-A폰 사용자라면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하는데 불과 37초(최고속도 기준)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같은 용량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데 광대역 LTE·LTE-A는 55초, LTE는 1분 50초, 3G는 9분29초 소요된다.

이통 3사는 이미 광대역 LTE-A의 전국망 구축을 완료했다. 다만 지원 단말기 확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광대역 LTE-A 전국망 시대를 맞아 이통3사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광대역 LTE-A 단말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무한 멤버십' 혜택과 'T프리미엄'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기고, 멤버십 할인한도 걱정 없이 전국 제휴처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T는 광대역 LTE-A 서비스에 맞춘 교육·게임 콘텐츠 등 특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고음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 HQS 음원', 모바일 IPTV인 '올레 TV모바일' 등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비디오 특화 콘텐츠로 경쟁에 나섰다. 국내 최다인 1만2000편의 영화와 미드 등 주문형 비디오(VOD)를 제공하는 '유플릭스 무비'▲내비게이션 서비스인 'U+Navi'에 고화질 해상도의 로드뷰를 장착해 비디오형 내비게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한 'U+ Navi Real'▲모바일로 촬영한 풀HD급 영상을 실시간으로 안방 TV까지 전달하는 'U+tv G 개인방송' 등 다양한 비디오 특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기존 '무한대 85 요금제'에 유플릭스 무비 상품을 더한 'LTE8 무한대 89 요금제', 'LTE8 다모아 비디오', 'LTE8 비디오팩' 등 신규 요금제도 출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광대역 LTE-A 전국 서비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객 편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잇따라 출시되는 만큼 고객들의 혜택도 강화되고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도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동통신3사가 7월 1일부터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의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오션월드 비키니 콘테스트 수상자들 하이트 진로 주최로 28일 오후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열린 '드라이d와 함께하는 2014 오션월드 비키니 콘테스트'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하이트진로 제공

대기업 그룹 계열사 20% '부실'

자본잠식·부채비율 400% 이상 279곳… 동부·GS·CJ 순

국내 대기업 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 부실위험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47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자본이 잠식됐거나,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재무구조 취약 기업이 279개로 전체의 20%나 됐다. 전년과 비교해 15개 기업이 늘었다.

2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중 47개 그룹 1418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곳이 169개, 자본잠식인 곳 110개 등 부실위험에 처한 기업이 279개(19.7%)로 집계됐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 5곳 중 하나 꼴로 한계기업 수준에 처해 있는 셈이다.

유동성 위험에 처한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동부그룹이다. 최근 극심한 유동성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동부는 51개 비금융 계열사 중 무려 24개(47.1%) 기업의 자본이 잠식됐거나 부채비율이 400%를 넘었다.

동부건설의 부채비율은 533%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동부하이텍도 430%를 초과하는 등 그룹 비금융 부문의 주력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2위는 GS로 78개 계열사 중 19개(24.4%)가 부실위험 기업에 속했다. 이어 CJ(15개. 22%), 롯데(14개. 22%), 효성(14개. 34%)이 3~5위를 차지했다. 코오롱(12개. 34%), 태영(12개. 32%), SK(11개. 14%), 한화(11개. 26%), 대성(10개. 14%)도 두 자릿수 이상의 부실 위험 기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룹별 부채비율은 현대가 540%로 가장 높고, 한진이 452%로 2위였다. /김태균기자 ksgit@


대한민국 GiGA 인터넷 시대
kt가 먼저 열어 갑니다
인터넷 20주년을 맞은 kt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을 넘어
미래를 여는 GiGA 인터넷으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이것이 kt가 GiGA 인터넷으로 열어가는
융합형 GiGAtopia 세상
GiGA인터넷 상용화 (2014)
세계최초 휴대인터넷 Wibro 상용화 (2006)
무선 초고속 인터넷 네스팟(NESPOT) 상용화 (2002)
고속인터넷 ADSL(Megapass) 시작 (1999)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 (Kornet) 시작 (1994)
당신과 미래사이
kt



오렌지캬라멜이 선보이는 '오렌지캬라멜 빙수' 배스킨라빈스는 28일 서울 강남대로점에서 '오렌지캬라멜 빙수' 출시 기념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 /배스킨라빈스 제공

금융 불법모집 신고시 포상

보험, 회사 제재하고 소정 금액 지급
카드, 금액 5배상향·신고기간 60일로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보험·카드 부당모집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보험

먼저 보험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면 보험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이 손보협회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보험 부당모집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와 대리점·중개사·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가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단 금품 제공금액이 1년치 보험료의 10%(한도 3만원)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 서류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의 대납, 다섯 번째는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제보를 해도 접수되지 않는 경우로는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경우 등입니다.

신고하려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협회 소속 보험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에 서면(02-3702-8585)이나 팩스(02-3702-8691)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명신고사항만 처리됩니다.

그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조사팀(02-3702-869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액을 5배로 올리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별 포상금액은 ▲종합카드의 경우 1회 포상금액 2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이 유지됐으나 ▲미등록모집이나 타사 카드 관련은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 제공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라가고 연간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동반 상향조정됐습니다.

신고하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이밖의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로도 신고가능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www.insucop.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5억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cop.or.kr), 1건당 최고 한도 20억원

▲회계부정·저축은행 위법행위·불법사금융·유사수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각각 1억원·3억원·분기별 100만원·분기별 200만원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못버리는 집에 대한 애착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 등 재산이 없다. 간혹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주택가격에 버금가거나 그 가격을 웃도는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2000년대 중반의 부동산 가격 급등때 무리하게 주택을 사서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

어느 30대 부부도 결혼 직후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나섰다가 집값 하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을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때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무리하게 집을 산게 일차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지만 집값이 뛰는데 "불안해서 그랬다"는 말에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어찌 보면 주택 정책 실패가 많은 부담을 서민들 어깨에 지운 셈이다.

그러면서도 집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으면 부채가 덕지덕지한 집을 팔고 싼 전세나 월세집으로 옮겨야 한다. 어느 50대도 1000만원짜리 다세대로 옮기고 새 출발을 했다. 그래야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인가에 호의적일 것이다.

그러나 집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한국인의 심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려면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어느 40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두어 달 후 친지이름으로 바꿔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순수한 의도'가 오해받아 개인회생 신청에 불리해진다. 능력에 맞게 집을 사고 감당이 안되면 미련없이 팔아야 뒤탈이 없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www.lawshelp.kr>

"은행 수익성 하락, 겸업·다변화로 대응해야"

금융가 사람들

■ 숭실대 금융학부장 윤석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은행권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순이자마진(NIM)과 정보 유출 등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봄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윤석헌(사진)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장은 "은행권의 수익성 하락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해결방안이 쉽지 않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겸업화와 수익 다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IB·자산관리 등 비이자수익 부분을 다변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금융경제에 여러가지 폐해를 초래한다"며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건전한 중개기능과 금융산업의 성장을 막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고위험 추구 영업으로 시스템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NIM 하락과 은행의 안전대출 선호 ▲비이자수익 비중 하락 ▲제반의 고정적 경비 등을 꼽으며 "한국은 전업주의 금융시스템 하에 비이자수익과 관련한 업무영역 자체가 제한돼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업주의 구조는 수수료 수입의 원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이같은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해 "겸업화 추진을 통한 수익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금융지주회사의 큰 틀 안에서 겸업화를 확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의 현실화 역시 은행권 수익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교수는 "수수료와 금리 등에 대한 규제감독 당국과 여론의 암묵적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금융 서비스 수혜자의 부담과 국민의 부담 간 조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 또한 은행권 수익 하락에 맞선 대응방안으로 지목됐다.

윤 교수는 "결국 금융권 전반이 규제 완화와 함께 개별 은행 차원에서 금융중개기능 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친환경 타운 '토요타 에코풀'을 가다

기업·시민·지자체 모여 '저탄소 모델지구' 건립
스마트하우스·수소충전기·체험프로그램 갖춰



수소 충전소가 마련돼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토요타자동차가 2012년 5월에 토요타시에 건립한 '에코풀 타운'에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친환경 사회가 함축됐다.

토요타가 '저탄소 모델 지구'를 목표로 세운 이곳은 환경기술 개발 과정에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함께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단순히 저탄소 자동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친환경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기자가 탄 버스가 에코풀 타운 입구에 들어서자 차를 막고 있던 기둥이 서서히 내려간다.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 덕에 별도의 호출이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출입차량을 감지하고 통제하도록 한 것. 시설 한쪽에는 아담한 2층 단독가구인 '스마트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가전이나 자동차, 태양광 발전을 연계해 가정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된 주택입니다."

이곳 안내원은 스마트 하우스가 일반 가정의 이산화배출량을 평균 55% 낮출 수 있고, 최대 75%까지 낮게 나온 실증치도 있다고 강조한다. 거실 벽면 스크린에는 그날 스마트 하우스의 발전량과 소비량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남는 전력이 있으면 시에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스마트 하우스는 건축비만 우리 돈으로 3억5000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 일본 2개 지역에 67가구가 분양돼 있다.

스마트 하우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수소 충전소가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상용 충전소의 실증 시설인데, 1대에 무려 60억원이나 하는 고가의 장비다. 영하 40도로 냉각된 수소는 기체 상태로 충전되며, 한 번 충전하면 대략 500km를 달릴 수 있다. 3분이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다. 향후 아이치현 9곳에 31곳의 수소 충전소가 세워질 계획. 이곳 담당자는 "오는 2020년이면 설비비용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쪽에 세워진 스마트 모빌리티 파크에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와 전동 바이크, 전기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이들 역시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시설들이다. 이러한 장비를 더 자주 접함으로 해서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요타가 소유한 시라카와고 자연학교는 '환경보전과 자연공생사회 구축'을 위한 시설이다. 이곳은 1973년 집단 이촌한 지역을 토요타가 취득해 종업원 휴양시설로 활용하던 곳이었다. 1981년 폭설로 갈대집이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유휴지 상태로 남아 있던 이곳은 2005년 4월에는 시라카와고 자연공생포럼이라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활동법인)에 위탁돼 자연학교로 개교된다.

각 계절에 맞게 준비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 중 기자가 찾은 이번에는 모닥불을 피워서 콩을 익혀 먹는 내용이 준비됐다. 나무를 구해 이를 땔감에 맞게 다듬고, 땔감에 불을 붙이고 솥을 설치하면서 온몸은 탄 냄새로 뒤덮였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이후 세계문화유산인 시라카와고의 갈대집을 둘러보며 전통문화보전의 소중함도 경험했다.

이러한 토요타자동차의 활동은 지구 전체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가 친환경차를 만들고 파는 것만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토요타는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쉐보레	마티즈	630	650	690	-	-
기아	뉴모닝	580	630	650	850	-
	포르테	870	950	1,010	1,130	1,170
르노삼성	뉴SM3	920	1,000	1,050	1,200	1,420
기아	K5	-	1,430	1,460	1,810	1,880
현대	i40	-	-	2,090	2,160	2,480
	에쿠스	3,200	3,250	3,900	4,520	5,990
쌍용	체어맨H	-	-	1,870	2,220	2,660
현대	투싼ix	1,570	1,600	1,690	1,950	2,110
	싼타페 DM	-	-	-	2,800	2,900
르노삼성	QM5	1,400	1,660	1,840	2,230	2,54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스타일 바꾼 렉서스, 도심을 누빈다

앞뒤 디자인 바꾸고 편의장비 보강
젊은 층 타깃, 블랙 루프스킨 적용

임의택의 차차차

■ 렉서스 뉴 CT200h F 스포츠

최근 국내 수입차시장의 빠른 성장은 디젤차와 하이브리드카가 주도하고 있다. 디젤차에서 독일차가 강세라면, 하이브리드카는 렉서스와 토요타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번에 시승한 렉서스 뉴 CT200h는 2011년 선보인 1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다. 앞뒤 디자인을 일부 바꾸고 편의장비를 보강해 경쟁력을 높인 게 특징. 앞모습은 렉서스의 상징인 스핀들 그릴로 단장해 더욱 스포티한 인상을 풍긴다. 특히 F 스포츠 모델은 3세대 신형 IS를 연상케 하는 벌집 모양 라디에이터 그릴로 세련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블랙 루프 스킨을 적용해 스타일이 한층 돋보인다. 새로 더해진 솔리드 레드 컬러도 매력적이다.

대시보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지만 일부 사양을 바꿨다. 내비게이션과 각종 차량 정보를 알려주는 7인치 모니터는 고정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얇아졌고, 2세대 리모트 터치 컨트롤이 적용돼 조작이 편리해졌다. 실시간 교통정보(TPEG)를 알려주는 3D 내비게이션도 기본 장착돼 있다.

구동 계통은 그대로다. 99마력의 1.8ℓ 가솔린 엔진과 82마력의 전기모터가 합쳐져 통합출력 136마력의 힘을 내도록 설계됐다. 이 차의 장점은 역시 정숙성이다. 저속에서는 미끄러지듯 달려가면서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주행모드는 4가지가 준비된다. EV 모드는 말 그대로 전기로만 달리는 것으로, 충전량이 충분할 때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선택이 없더라도 시속 40km 이하에서 배터리가 충분하면 자동으로 EV 모드가 작동한다.


▲한 줄 평가: 스타일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뛰어난 연비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에코 모드는 경제적인 주행을 위주로 세팅되고, 노멀 모드는 일반적인 주행 때 선택한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면 센터 클러스터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왼쪽의 하이브리드 인디케이터가 rpm 미터로 표시된다. 또한 전기모터의 동력은 500V에서 650V로 높아져 가속이 한층 빨라진다.

이들 주행 모드는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할 경우 만족감이 크다. 프리우스의 것을 닮은 기어 레버는 조작이 간편해 여성 오너들에게 더욱 환영받을 것 같다.

뉴 CT200h는 도심에서 존재감이 더욱 빛난다. 도심 연비가 18.6km/ℓ, 고속도로 연비가 17.5km/ℓ로 도심 주행에서 더욱 좋은 연비를 보인다. 시가지를 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5.1km/ℓ를 기록했다.

이 차는 앞으로 도입이 예정된 '저탄소협력금제도'의 덕도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1g/km에 불과하기 때문. 디젤차가 부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 CT200h는 세련된 스타일과 좋은 연비, 풍부한 편의장비가 돋보인다. 가격은 수프림 3980만원, F SPORT 4490만원으로 이전 모델보다 각각 210만원과 410만원이 낮아졌다. 뉴 CT200h는 경쟁력 높아진 가격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BMW 1시리즈 등과 경쟁하기에 한층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 렉서스에게 주어진 숙제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일이다.

/임의택기자

한양사이버대, 2014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부는 다음달 4일, 석사과정은 14일까지
국내 사이버대 중 93억원 최다 장학금 지급



사이버대학교가 최근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사이버대학교는 공부할 시기를 놓친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젠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20~30대 직장인부터 고졸 취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10·20대까지의 교육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대학은 역시 한양사이버대학교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대학교의 대표격이다. 실제로 국내 2007년 교육부 사이버대학교 평가 전영역 종합 최우수대학이자 2010년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대학원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경영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부동산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등 5개 대학원 12개전공, 350명 정원의 석사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졸업생 배출 1년만에 졸업생의 17%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놀라운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순위는 다양한 지표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사이버대학의 입학특성상 가장 많은 학생이 몰리는 사이버대학은 한양사이버대학교이다. 21개 사이버대학 중 재적학생 1만5490명인 한양사이버대학교가 1위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두드러진 장점 중의 하나는 최대의 장학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의 장학금액 확충을 통해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인 93억원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입학자의 비율 중 여성의 비율이 과반을 넘어 60%에 육박한다. 여성을 우대한 '주부장학생'을 마련하여 입학 후 1년간 20%의 수업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한양사이버대학교에는 주부들이 유독 많이 찾는 전공이 있다. 바로 아동학과다. 아동학과의 여성 비율은 96%에 달하며, 상담심리학과는 78%, 사회복지학과는 70%에 달한다.

이러한 한양사이버대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몰리고 있다. 직장인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일반 오프라인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반면 사이버대학원은 효율적 시간활용이 가능하며,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과정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췄음에도 다시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가 최신의 교육동향습득과 이론적 배경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학업의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다음달 14일까지 2014년 1학기 석사과정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누구자 지원할 수 있다. 학부의 경우는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나 4년제 대학교 수료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http://go.hycu.ac.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2290-0082)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자 '주부들 배움 열풍'



/한양사이버대 제공

국내 대표 사이버대학교인 한양사이버대학교에는 요즘 주부들의 입학문의가 잦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최근 입학자의 비율 중 여성의 비율이 과반을 넘어 60%에 육박한다면서 사이버대학의 주 지원자는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다수는 주부로서 가정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이들은 아이들의 육아와 함께 본인의 성장도 함께 꿈꾸고 있다. 실제로 주부들은 사이버대학을 통해 본인의 새로운 경력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며, 실제로 관련 분야 전공일수록 여성학습자의 비율이 높다.

한양사이버대학교에는 주부들이 유독 많이 찾는 전공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격증과 관련된 전공이자 자녀들의 학습과도 관계가 깊은 전공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교육공학과 등이다. 아동학과와 사회복지학과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시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상담심리학과 역시 상담심리사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교육공학과 역시 졸업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 전공의 공통점은 자격증과 관련이 있다. 본인의 경력 및 자격을 만듦과 동시에 자녀의 교육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의 여성 비율은 96%에 달하며, 상담심리학과는 78%, 사회복지학과는 70%에 달한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주부들에게 학습의 도움이 되고자 전업주부 장학금 등을 마련하여 부담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내에 학습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다음달 4일까지 2014년 2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http://go.hycu.ac.kr)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을 바꾸는 과학
HAAN
한경희생활과학

'2014년 CJ오쇼핑 상반기 결산'

한경희생활과학 고객감사 대축제



한경희 광파오븐 홈쉐프 (HO-2000)



한경희 건강식마스터 (HFM-1000)



한경희 자동스팀 파워액션 (SS-2500WT)

6월 30일

오늘

CJ O SHOPPING

오전 08시 15분 ~ 09시 20분 한경희 건강식마스터 (HFM-1000)
오후 13시 40분 ~ 14시 40분 한경희 자동스팀 파워액션 (SS-2500WT)
오후 17시 40분 ~ 18시 40분 한경희 광파오븐 (HO-2000)
오후 21시 40분 ~ 22시 40분 한경희 건강식마스터 (HFM-1000)

오늘 한경희 방송 상품 구매고객 중 120분께는 추첨을 통해 '에어프라이어' 를 드립니다.



건강식마스터 (HFM-1000)

판매가 159,000원, 자동주문 1,000원, 무이자 10개월, 최종혜택가 158,000원
사은품 : 핸디스팀청소기 (HS-101Y) + 한경희 열판다림 (EIC-3000VI)
한경희생활가전 4대 찬스 (본품, 사은품, 경품 포함)



광파오븐 홈쉐프 (HO-2000)

판매가 149,000원, 자동주문 1,000원, 무이자 5개월, 최종혜택가 148,000원 (대한민국 최저가)
사은품 : 다목적 패드 1SET



자동스팀 파워액션
(SS-2500WT)

판매가 69,000원, 자동주문 1,000원, 무이자 3개월, 최종혜택가 68,000원 (대한민국 최저가)

지하철 '두 줄 서기' 이젠 결론내자



뉴스룸에서
이 충 건
<편집위원>

"에스컬레이터는 빨리가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두 줄로 서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지하철 이용자들에게는 10년 가까이 매일 마주치는 익숙한 안내문구다. 그러나 '두 줄 서기'의 호응도가 높아지기는커녕 영 신통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느낀다. 아무리 동참을 호소해도 외면받기 일쑤다. 특히 출퇴근시간의 경우 '두 줄 서기'보다는 '외 줄 서기'가 지하철 문화의 대세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 '두줄서기'가 버림받는 이유는 뭘까?

불편하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서울메트로등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두줄서기 운동'을 펴고 있다. 켐페인을 벌이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반응은 언제나 시큰둥하다. 에스컬레이터 한줄은 서고 한줄은 이동하도록 공간을 확보해놓아야하는데 두 줄 모두 봉쇄(?)돼 있으면 빨리 갈 수없어 시간지체가 불가피하다는 것.

두줄서기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려해도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 엉거주춤 한줄 서기 행렬로 옮겨간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있다. 한쪽 공간을 막고 버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자는 배려에 우선권이 주어진 결과다.

그렇다면 안전보다는 남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한 줄 서기'를 그냥 방관해야만하는가. 더 이상 이런 엉거주춤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결론을 냈으면 한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두 줄 서기'가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정착되도록해야하지않을까한다. '한 줄 서기'로 인한 역주행이라든지 급정지등의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설득하고 불가피성을 알려야한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에 관한한은 예외없이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 700만명이상이 이용한다는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위험운행을 강행하고 있다면 말이 안된다고 본다.

안전이 보장되려면 불편은 감수해야만 한다. 서울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서 있으면 평균 약 40초, 올라가면 약 2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과거 강원도 오지 커브길에서 자주 보았던 "5분 빨리가려다 50년 빨리간다"는 교통 표지판이 생각난다. '20초의 빠름'에 집착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길지 않은가.

규제개혁 시계 왜 멈추는가?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핵심과제로 삼은 규제개혁의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 '끝장 토론'까지 벌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4·16 세월호 참사'에 가려진채 추진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연말까지 규제 10%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1만5308개였던 규제 건수가 규제개혁 끝장 토론 후 오히려 2건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규제개혁, 창조경제, 공공혁신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핵심 이슈를 국민들에게 잘 알렸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집행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예정대로 규제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했다면 최소한 전체의 2~3%에 해당되는 300~400건 정도는 줄였어야 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역주행 할지도 모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개조의 핵심인 '관 피아'척결도 인적 청산과 함께 규제개혁이 뒷받침 돼야 보다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가 곳곳에 도사리면서 '관 피아'를 키워 왔기 때문이다.

지금 각국은 경쟁이나 하듯 규제개혁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영국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One-in, Two-out'로 하나를 늘리면 두개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늘어나는 정부의 규제가 기업 부담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지난 2006년부터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오다 2011년부터는 아예 규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을 확인해주는 '그레이스 존 해소제도'까지 만들어 기업을 돕고 있다. 이는 "애매할 경우 허용해준다"는 정책이다. 호주의 경우, 지난 3월 26일 불필요한 1000여개 법안과 관련된 행정규제 9500개를 없앴다. 더욱이 연간 의회회기 이틀을 '규제폐지의 날'로 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 분야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지만 환경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특단의 혁파가 요구된다.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지 60일 만에 유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가운데 경제혁신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포토프리즘 분수대 찾은 시민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를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30도 안팎의 무더위속에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지나가던 발길을 멈추고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 손진영기자 son@

'생수 논란' 김수현·전지현, 최선인가?



기자수첩
전 효 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이 중국 생수 광고 모델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역사 인식 논란을 감수하고 업체와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도 강행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생수 논란'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생수 병 겉면에 표기된 백두산의 중국 명칭인 '장바이산'(장백산)이 문제가 됐다. 중국이 벌이는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이 확대된 게 장백산문화론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역사적 관점이라는 의견이다. 학계에선 장백산은 이미 중국 소유이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중국 국민들은 장백산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취수원 표기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국내 여론은 드물다. 한류 스타는 문화 자체가 되고 있다. '생수 논란'은 국가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연예인의 과거 행동과 발언이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메트로 신문에 "헝다그룹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결론을 낼 경우 반한 감정이 심해질 것 같다"고 국내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에 엄청난 위약금은 부담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 연예 관계자들의 역사 인식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정 회사 중심이 아닌 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논의해야 한다.

정치의 위기, 삶의 위기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강자의 지배가 곧 정의다"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고대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그는 국가와 정치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정의가 힘에 의한 지배로 받아들여질 경우, 약자들의 목소리는 짓밟히게 되어 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선은 정치의 목표이자 그런 정치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걸 일깨운 것이다.

정치와 국가는 정의로운 세상과 좋은 삶을 보장해나가는 역할을 해나가지 못할 때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930년대 영국의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 정치학자 해롤르 라스키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서 파시즘의 도래가 내다보이자, 치열하게 논전을 펼친다. 그는 "부당한 질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지식인들이 이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마비와 지적 황폐에 기여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위기는 인간과 그 공동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암살당했으나, 스웨덴이 여전히 사랑하는 정치가 올로프 팔메 총리는 자신의 신념을 정치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관철시켜나간 인물이다. 그는 현실을 내세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철학과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았다. 정의로운 세상, 좋은 삶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남아공의 인종차별 체제 아파르트헤이트 등에 대한 국제적 사안에도 용기 있게 발언했다.

스웨덴이 중립국가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예상을 넘는 것이었다. 그러나 팔메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나라인 우리의 영향력은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평화와 중재,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중립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스웨덴의 교육은 "비판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완벽한 체제는 없기 때문에 비판적 시민이 끊임없이 정치를 감시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고,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는 곳에서는 정치가 무너지고 인간의 삶도 흔들린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시민이 주체가 된 "정치의 복원"이 절박해지고 있다.

생리량 갑자기 늘면 자궁 혹 의심을

생리통 심해지면 자궁근종 질환 조심하도록



생리량은 여성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게 된다. 하지만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질 때가 있는데 이때 일부 여성들은 자궁이 젊어진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2개월 이상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자궁근종과 같은 자궁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주기적인 검진 통한 질환 진단 필요

자궁근종은 자궁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장막하·점막하·근층내 근종으로 나뉘며 주로 35세 이상 여성의 40~50%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생리량 과다, 생리통, 복부 불편함과 배뇨 장애 등이며 작았던 근종이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궁근종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만큼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크기와 개수를 파악해야 하며 만약 근종의 크기가 3㎝ 이상이거나 다수의 근종이 분포했다면 수술을 통해 근종을 제거해야 한다.

자궁근종의 수술법으로는 근종제거술이나 자궁적출술, 비침습적 시술, 호르몬 치료 등이 있다.

과거에는 자궁절제술 혹은 자궁적출술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근종이 있는 자궁 부위를 절제해 자궁 기능의 소실 등 임신의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자궁 전부를 드러낼 수도 있어 수술의 예후 역시 좋지 않았다.

게다가 비침습적 치료술 중 하나인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환자의 조직이나 기관에 방사선이 축적될 수 있고 종양세포를 확실히 없애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자궁 기능의 상실을 막기 위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이푸(HIFU) 시술이 주목받고 있다. 고강도 초음파를 근종에 집중시켜 근종을 제거하는 시술로 주변 조직 손상이나 유착 없이 근종을 확실히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가임기 여성들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민우 청담산부인과외과 원장은 "초음파를 사용하는 하이푸 시술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며 "자궁 질환이 의심되면 정확한 검사와 함께 치료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생애 주기 따라 달라지는 성대 건강

주기적인 검진 통한 관리로 음성 질환 예방해야

생애 주기에 따라 여러 신체 부위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목소리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년기·청소년기·중년기·노년기에 맞춰 성대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목 건강을 지키는 법이다.

◆성대 상하면 목소리와 발음에 이상 생겨

먼저 유년기에는 습관적으로 악을 쓰듯이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무리한 발성습관이 지속되면 목 점막이 점점 두꺼워져 성대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도 성대결절은 6~7세 남자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음성 질환으로 아이가 잘못된 발성습관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 2차 성징과 함께 변성기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에는 변성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간혹 목소리 변화를 숨기기 위해 목소리를 일부러 바꾸거나 강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성대 근육을 과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성대구증, 성대낭종과 같은 질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중년기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각종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목소리의 변화도 찾아온다. 특히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성대 구조 역시 변화를 겪게되는데 심하면 고음이 나오지 않는 고음발성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성대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성대에도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 노년기에는 성대 점막층에 만성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쇠를 긁는듯 한 소리가 나기 쉽고 사래 걸림, 잔기침 등이 노화의 증거가 된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듯이 주기적인 성대 검사를 통해 성대 노화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성대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성대에 무리를 주는 고성·헛기침·목 가다듬기 등의 습관을 자제해야 한다.

안철민 프라나이비인후과 원장은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고, 변한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면서 통증과 이물감 등이 동반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여름철 증가 '요로 결석', 중년 남성 주의보

환자 절반이 중년층…7~9월에 진료 인원 가장 많아

여름철 중년 남성들은 무엇보다 요로 결석을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요로 결석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총 진료 인원이 2009년 약 25만 명에서 2013년 약 28만 명으로 5년간 3만 명(11.8%) 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63.7~65.1%, 여성이 34.9~36.3%로 남자 진료 인원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50대 구간이 25.5%로 가장 높았고 40대(22.8%), 30대(17.7%)가 그 뒤를 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진료 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요로 결석 진료 인원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7~9월)에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8월에 요로 결석 환자가 집중됐다.

요로 결석이란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돼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여름에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 알갱이가 잘 뭉쳐지기 때문이다. /황재용기자

이화의료원, 'JCI 재인증'

2011년 7월 첫 인증 이후 두 번째… 환자 안전·의료 서비스 국제 표준 병원 입증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은 최근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이하 JCI)로부터 방문 평가를 받은 결과 'JCI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JCI는 1994년 미국에서 자국 내 병원을 평가·인증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 비영리기관으로 현재 전세계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이화여대 의료원 방문 평가에서 JCI 현장 평가 위원들은 한층 강화된 JCI 기준집 제5판의 인증기준에 맞춰 16개 평가 부문, 316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의료원은 환자 안전 시스템과 의료의 질 관리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011년 7월 최초 인증에 이어 재인증을 받게 됐다.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 원장은 "이번 재인증은 의료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국제 표준 병원임을 다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병원 전체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 2012년 JCI에서 운영하는 '질환별 JCI 인증' 분야 중 '뇌졸중 프로그램' 부문에서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황재용기자

‘큰 물에서 놀자’… 발 넓히는 제약사·화장품

국내 경기가 불황을 지속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사회 이슈로 소비심리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체들은 이런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 개척을 모색하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먼저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축적한 의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인기몰이 중인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사가 화장품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자 화장품 업계는 오히려 의과학을 화장품 제품에 접목시키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국내 화장품의 이미지가 높아진 것을 이용해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기기·화장품 등 위기 탈출 판로 개척나서

국내 제약업계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철퇴를 맞은 후 매출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정부가 또다시 제약사의 앞길을 막았다.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의료기기·화장품·식음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고 외국계 제약사는 국내 바이오업체들과 힘을 모으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에 손 벌리는 제약사들

먼저 국내 제약사들이 의료기기 시장에 연이어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동안 겪은 매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의료기기의 판권을 확보하거나 회사 내에 의료기기 개발팀을 조직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영국 의료기기 전문기업 스미스메디컬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혈관확장용 카테터를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용성형 분야 의료기기 계열사인 일동에스테틱스를 통해 냉동지방분해 의료기기를 출시했다.

동화약품은 스페인 제약기업 라보라토리 신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의료기기 전문 브랜드인 파마라스틱의 국내 판매권을 확보했다. 이 제품은 현재 전세계 52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동국제약은 콘택트렌즈 전문 중소업체 벨모아콘택트를 인수해 국내외 콘택트렌즈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동아에스티도 의료기기업체인 엠아이텍을 인수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뷰티 시장을 잡아라!

국내 제약사들의 외도 중 가장 눈길을 모으는 것은 뷰티 시장이다. 제약사들이 브랜드 리뉴얼 등으로 화장품 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인 태평양제약은 기존에 판매해왔던 병의원 전문 화장품을 에스트라라는 통합 브랜드로 출시했다. 대웅제약 관계사인 디앤컴퍼니는 세포 재생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 이지듀를 선보였다.

또 한국오츠카제약은 일본에서 남성화장품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우르오스를 들여와 대형 마트와 드럭스토어 등으로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보령제약 역시 일본 다이이찌산쿄헬스케어가 개발한 미백기능성 화장품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를 도입해 현재 약국에 유통 중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관계사인 약국 영업·마케팅 업체 온라인팜을 통해 화장품 전문기업 데이셀코스메틱과 비타민화장품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의약품 개발로 쌓아온 기술력을 표면에 내세우며 홍보·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과 함께 드럭스토어에서의 입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제약사들은 보툴리눔톡신(보톡스)과 필러 등의 주름개선제를 앞세워 뷰티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이지듀를 판매 중인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와 필러 퍼펙타를 출시하고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해외에서 도입한 필러 제품 엘란쎄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더욱이 동아에스티도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 부티리스를 발매했으며 LG생명과학 이브아르, 한독약품 스컬트라 등도 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 국내 업체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와 함께 외국계 제약사들은 국내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본사가 가진 글로벌 마케팅력과 뛰어난 국내 기술력을 융합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첫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바이오플랜트에서 의약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로슈 역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머크는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통해 국내 업체와 힘을 합치겠다는 심산이다.

또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 파멥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국노바티스도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래도 뛰어야 산다!

제약업계의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발을 넓히는 데 성공한 제약사가 있어 눈에 띈다.

지난해 467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보다 41% 늘어난 실적을 올린 광동제약이다. 이는 광동제약이 다른 것보다 음료 분야에서 탄탄한 판매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제주삼다수,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광동제약은 음료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제약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문의약품 30종, 일반의약품 18종의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독약품에서 사명을 한독으로 변경한 한독은 다른 제약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세계 1위 제네릭 제약사인 이스라엘의 테바와의 합작회사인 한독테바를 설립한 한독은 한독테바의 매출과 실적을 통해 한독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또 1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태평양제약의 제약사업 부분을 인수했다. 관절염치료제 케토톱을 필두로 약 500억원대로 추산되는 태평양제약의 매출을 이어받아 일반의약품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최근에는 카레의 주 원료인 울금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원료로 하는 숙취해소제 레디큐를 출시해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도 진입했다. 게다가 바이오 벤처회사 제넥신의 지분을 인수하며 지속형 성장호르몬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피부과 기반 ‘의료 화장품’, 해외 진출 가속화

신뢰와 기술력 바탕으로 동남아·중동 등에서 인기

메디컬 스킨 케어를 바탕으로 한 화장품, 이른바 ‘코스메슈티컬(cosmaceutical)’ 시장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내수 시장에만 집중해왔던 국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며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운세상 코스메틱, CNP차앤박화장품 등 피부과를 기반으로 한 전문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의료진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이 높은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는 동남아 지역은 물론 러시아와 중동 시장까지 타진하며 본격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베트남 코스모 뷰티 행사, 두바이 국제 박람회 등에 참석했는데 현지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등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업체는 2007년 처음으로 해외에 발을 디딘 이래 현재 홍콩·대만·미국·캐나다·중국·태국 등 12개국에 제품을 유통하는 등 비교적 좋은 수출 성적을 내고 있다. 중국 왓슨스, 태국 부츠 , 홍콩 사사 등 글로벌 드럭스토어 입점과 함께 태국과 중국에서는 단독 매장까지 오픈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지함 화장품 또한 태국·중국·싱가폴 등에 제품을 수출하며 활발한 해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드러그 스토어 매닝스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상해에서는 화장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앤박 피부과를 기반으로 한 CNP차앤박화장품 역시 2008년 대만 모모홈쇼핑 판매와 2010년 본 드러그 스토어 입점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확대를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해외 수출용 브랜드 ‘cha&park’을 별도로 론칭, 현지화 전략을 채택했다.

이같은 피부과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은 K-뷰티 붐을 타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운세상 관계자는 “국내 피부과 기반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최근 4~5년 새 본격적으로 규모가 성장했다”면서 “특히 K-뷰티 열풍으로 높아진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들은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pjw@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 홍콩 SASA 매장. /닥터지 제공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 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여름철 건강 청결한 세탁 방법



세탁기 청소는 필수… 변색·곰팡이 막아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결한 옷 세척이 중요하다.

청소를 하지 않은 세탁기는 세균이 자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세탁한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세탁기 청소제를 사용할 경우 세정제가 잘 녹을 수 있도록 고수위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시간 정도 기다린 후 표준 코스로 1회 돌리면 효과적으로 세탁조를 청소할 수 있다. 통돌이 세탁기의 경우 세탁조에 물을 적당량 받고 양조식초를 넣어 하루를 지낸 후 걸레 두 장을 넣어 세탁기를 풀 코스로 가동하면 된다.

하얀 티셔츠를 입으려 보니 겨드랑이 부분이 누렇게 변한 경우가 있다. 한 번 변색된 섬유는 추후 세탁해도 원상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옷을 입은 후에는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헹굼 시 식초 몇 방울을 섞어주면 살균 효과가 있다.

의류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곰팡이가 의류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는 뜻으로 강력한 표백제 외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장마철에는 세탁물을 즉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의류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락스와 소다를 물에 희석시켜 담가둔다. 단 색상이 있는 의류와 모, 실크 등의 고급 섬유는 햇볕에 의류를 바짝 말려 의류의 곰팡이를 분말 형태로 떨어뜨려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름철 이불은 땀·피지·노폐물은 물론 이불 속 집먼지 진드기 사체 및 배설물이 각종 알러지와 아토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 세탁해야 한다. 흰 이불에 얼룩이 생겼다면 김장봉투를 활용해 때를 미리 불려 세탁한다. 김장 봉투 밑면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다음 소주 1컵 분량의 알칼리성 액체 세제를 봉투에 담아 세제와 물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다. 이불을 넣고 공기를 뺀 후 손으로 밀가루 반죽하듯 주물러 준 다음 봉투를 뜯어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면 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불볕 더위 '아끼는 게 대세'

절전형 똑똑한 가전제품 인기

올해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누진세 적용으로 천정부지로 오를 전기료다. 이런 가운데 가전업계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절전형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시원하면서도 전력소비가 적은 절전형 에어컨이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인 5월부터 서서히 판매고를 올리더니, 6월 첫째 주에 접어들면서 일주일 사이 판매율이 57%나 상승했다.

절전형 인버터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판매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에어컨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20%정도 비싸다. 하지만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한 전력량과 남은 전력량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기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에어컨도 등장했다.

에어컨의 전기료를 걱정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선풍기의 인기가 뜨겁다. 실제로 매장에는 절전형 선풍기와 미니선풍기 등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면서 환경에도 덜 영향을 주는 합리적인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일반 선풍기보다도 저전력으로 작동되는 초절전형 D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아낙 선풍기가 대표적이다.

소셜커머스에서도 절전형 가전제품의 인기가 높다. 에어써큘레이터·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에어컨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제습기 등 절전형 냉방제품과 쿨매트·마작대자리·인견 여름침구 등 전기료 걱정 없는 냉방 상품이 그야말로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절전형 가전제품의 발달도 눈에 띈다.

독일 가전 브랜드 지멘스의 '퍼펙트 드럼 세탁기'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인 베리오퍼펙트 기능이 탑재돼 스피드퍼펙트와 에코퍼펙트 기능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 오피스 아이템도 등장했다.

엡손의 신제품 프린터 'L1300'은 엡손이 세계 최초로 잉크 공급장치를 외부에 장착한 'L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최대 A3+ 규격의 용지까지 지원하는 최초의 A3 정품 무한 프린터다. 기존 잉크젯 카트리지 방식 대비 10배 이상, 레이저 프린터 대비 20배 이상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습도를 낮춰 쾌적한 느낌을 전달하는 제습기의 전력 소모량은 에어컨의 10분의 1에 불과해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위닉스의 제습기 2014년형 '위닉스 뽀송'은 절전, 대용량 등 국내 소비자에게 맞는 성능으로 재탄생했다.

선풍기 2대를 켜놓은 정도의 낮은 전력 소비량으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삼성 포터블쿨러 쿨프레소'는 이동이 간편해 전기 사용이 가능한 실내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쉬크, '공간사연 찾기' 등 2가지 이벤트

면도기 브랜드 쉬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 쉬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감사연 찾기 이벤트'는 지난 '투게더 사연 공모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사연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연에 투표한 응모자를 추첨해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1등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정장을, 2등에게는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등에게는 쉬크 하이드로 그루머 면도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쉬크는 12월 30일까지 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마트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쉬크 하이드로5 8입날, 하이드로5 면도날 8입 기획팩 또는 하이드로5 면도날 6입 기획팩을 구매한 후 제품 패키지의 일련번호를 이벤트 페이지 입력란에 입력하면 모바일 쿠폰을 수령 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

데님 활용 쿨비즈 룩 '쿨가이' 변신

얇은 소재 콤비 재킷 활용 무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쿨비즈 스타일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실용적이면서 세련된 스타일로 20~30대 젊은 오피스맨들의 관심이 높다.

평소 정장 바지에 셔츠, 넥타이로 완성되는 일반 정장 차림에 익숙한 직장인이라면 데님을 입어보는 것도 좋다. 데님은 잘만 활용하면 격식에 어긋나지도 않고 편한 옷차림을 연출 할 수 있다.

정장에 입는 빳빳한 흰색 셔츠 대신 데님 셔츠를 입는다면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블루 색상은 신뢰감과 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이다.

여름 재킷은 더워 보이지 않게 입는 것이 중요한데 얇은 소재의 콤비 재킷을 가볍게 걸친다면 직장인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오피스맨들에게는 더운 여름에 긴 정장바지를 입고 출근해야 하는 것만큼 고역도 없다. 점잖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반바지는 집에서만 입는 아이템이었지만 최근에는 쿨비즈 열풍과 함께 반바지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짙은 색의 데님이나 워싱이 적게 들어간 데님 반바지는 어떤 상의와도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또 화려한 워싱이나 디스트로이드 장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반바지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면 시원한 소재를 활용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아이템을 많이 찾게 되는데 최근에는 기술력이 바탕이된 시원한 청바지가 출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가벼운 데님 팬츠나 반바지를 입었다면 신발은 신고 벗기 편한 로퍼나 보트슈즈, 슬립온 등을 선택하길 권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metroentertainment E

연기와 흥행, 둘 다 잡은 배우

강지환

'빅맨' 첫 골 넣은 작품



배우 강지환(37)은 KBS2 월화극 '빅맨'에 출연하면서 작품을 보는 안목과 흥행력을 두루 갖춘 배우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빅맨'에서 그는 그룹 대표로 성장한 양아치 김지혁 역을 맡았다. 작품은 지난 17일 자체 최고 시청률(12.6%)로 종영했다. 동시간대 경쟁작인 SBS '닥터 이방인'(10.8%)을 처음으로 앞섰다. '빅맨'은 우리 시대 리더상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다. 그는 "연말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이라도 주겠죠"라며 인터뷰 내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 유종의 미 거둔 '빅맨'

"전작 시청률이 안 좋아서 2~3배만 올라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MBC '기황후' 때문에 엄두가 안 났죠. 그래도 '닥터 이방인'과 JTBC '밀회'의 희생양이 되는 건 배우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좋아요."

강지환은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며 "어떻게 하면 대기업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서러운 상황에 처해도 천방지축 캐릭터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고 김지혁 역을 소화하기 위해 염두에 둔 점을 말했다.

'빅맨'은 김지혁이 소미라(이다희)와 함께 현성그룹 옥상에 올라가 '괴물인 줄 알았던 이곳 정상에 올라오니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최적의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강렬한 한방을 위해 내용이 이상하게 전개됐으면 외면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서의 키스 장면은 예정에 없었어요. 항상 준비하는 가글과 껌이 없어서 걱정한 기억밖에 없어요. (웃음) 마지막 대사로 거대한 외형만 보고 겁먹지 말고 '일단 겪어보자'는 교훈을 얻었죠."

◆ 팬 바보인 이유는?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했다. 그는 "주인공에 주목하는 게 당연한데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가족과 친구를 제외하고는 연기를 봐주는 관객이 없었다"고 12년 전을 회상했다.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았어요. 온몸에 그림을 그려서 튀어 보려고 했죠. 그때 처음 팬 두 명이 생겼어요.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저를 보려고 왔죠. 여섯 명까지 인원이 늘었어요. 신기한 게 팬의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잘 되지 않던 점프나 고음도 힘이 나서 했어요. 팬 카페가 처음 개설됐고 활동 중간에 소속사 문제 등으로 힘들었을 때도 큰 힘이 됐죠."

그러나 그는 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팬을 옭아매진 않아요.



KBS2 '빅맨'의 강지환. /KBS 제공

빅뱅이든 동방신기든 상관없이 좋아하라고 하죠. 작품 나오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창단 멤버들은 시집가면서 떠났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특히 기자가 돼서 인터뷰하는 게 꿈이라는 팬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 기사를 별로 안 쓰는 거 같지만 굉장히 반갑죠. (웃음)"

◆ 디자인 전공자에서 원톱배우로

그는 "디자인을 전공했다"며 "대부분의 배우들과 다른 길을 걸었기에 차별화될 수 있었다"고 배우로서의 자존감을 보였다.

"회사원으로 1년 정도 생활했어요. 배우는 군대 말년 때 별을 보면서 다짐했죠. 서른 살까지 배우가 안 됐으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스물아홉 살에 MBC '굳세어라 금순아'로 데뷔했죠."

올해로 데뷔 12년 차 배우가 된 그는 "이젠 노하우가 생겨 커닝이 가능하다"며 "예전엔 쪽대본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편집 지점을 알다보니 '당황하지 않고 빡!' 해낸다"고 말했다.

'빅맨'에선 원톱 배우로 존재감을 보였다. "'돈의 화신'이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라면 '빅맨'은 첫 골을 넣은 작품이에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연기를 잘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와이트리미디어 제공·디자인/최송이

연말에 베스트 커플상이라도 받았으면
겁먹지 말고 일단 겪어보자는 교훈 얻어

잘생긴 얼굴보다 뇌가 섹시한 사람이 뜬다

케이블·종편 채널 평정한 홍진호·허지웅·닥터 엘

지난 2010년 영국 BBC원 드라마 '셜록'이 전 세계에 몰고온 '뇌가 섹시한 사람' 열풍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지적인 모습이 새로운 섹시함이라는 뜻의 '브레이니 이즈 뉴 섹시(Brainy is new sexy)'는 한국에선 주로 뇌가 섹시한 남자 또는 여자로 표현된다. 뇌가 섹시한 사람은 '셜록'의 주인공 베네딕트 컴버배치처럼 외모가 빼어나지 않아도 지적 능력이 뛰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들을 가리킨다.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는 뇌가 섹시한 남자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지난해 tvN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에 출연한 홍진호는 게이머 출신이란 이유로 'PC방 죽돌이' 등의 놀림을 받으며 다수 연합에 속하지 못하고 홀로 게임을 헤쳐 나갔다. 홍진호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게임 능력으로 다른 출연자들의 경계대상 1호로 부상하며 빈번하게 데스매치(탈락자 결정전) 상대로 지목됐다. 몇 번의 탈락 위기에도 홍진호는 기지를 발휘해 살아남았고 결국 우승을 거머쥐었다.

홍진호의 승리는 시청자에게 주류에 속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카타르시스를 안겼고 그는 '더 지니어스'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크라임씬'의 홍진호. /JTBC


'마녀사냥'의 허지웅. /JTBC


'연애전당포'의 닥터 엘. /손진영 기자 son@

홍진호는 올해 초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지니어스 아이콘으로 다시 한 번 출연하며 본격적인 방송인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서 가수 레이디제인과 애정 전선을 형성하며 이슈메이커로 떠올랐다. JTBC '크라임씬'에서는 범죄 추리를 펼치며 여전히 섹시한 뇌를 자랑하고 있다.

홍진호가 이과생의 섹시함이라면 허지웅은 문과생의 섹시함이다.

영화평론가 허지웅은 JTBC '마녀사냥'에서 신동엽·성시경 못지않은 입담을 과시하며 방송가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허지웅은 '마녀사냥' 단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종편이 낳은 스타 대열에 합류했고 지난 3월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며 지상파까지 진출했다.

같은 시기 허지웅은 소설 형식 연애담 '개포동 김갑수씨의 사정'을 출간하며 '글쟁이'로서의 본분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그는 성시경과 함께한 토익광고, 단독 스마트폰 광고에 이어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KBS2 새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에 캐스팅설이 오가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허지웅 연기자 데뷔설에 '연애의 발견' 측은 "아직 캐스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허지웅이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도준호 역은 여주인공 정유미와 한 집에 사는 성형외과 의사로 장난기 넘치는 바람둥이 캐릭터다.

남성들이 주로 뇌가 섹시하다는 칭찬을 받는 가운데 심리상담가 닥터 엘은 지적인 여성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닥터 엘은 직접 블로그 '연애상담소'를 꾸리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지난달 31일부터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연애전당포'에 출연 중이다. 수많은 연애 상담 프로그램의 출연진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연 주인공들을 상담하지만 닥터 엘은 심리상담가다운 면모를 뽐낸다. 그는 '연애전당포'의 MC들의 의견이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침착한 자세로 원인 분석부터 해결 방향까지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감초역할을 해내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tvN 광고 영상 속 싸이. /CJ E&M

싸이, 2년 연속 tvN 얼굴

신동엽·유희열·이영자 등 출연진과 호흡

가수 싸이가 2년 연속 CJ E&M 계열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tvN의 얼굴이 됐다.

올해 tvN이 선보이는 광고 콘셉트는 '처음 만나는 즐거움'이다. 광고는 싸이가 tvN의 간판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공간을 돌아다니며 각 프로그램의 출연진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싸이는 'SNL 코리아'의 신동엽·유희열·유세윤·나르샤·박재범, '코미디 빅리그'의 이국주·유상주·장도연·박나래, '연애 말고 결혼'이 연우진·한그루, '현장토크쇼 택시'의 이영자, '꽃보다 할배'의 나영석 PD 등과 호흡을 맞췄다.

이덕재 tvN 본부장은 "익숙한 것에 대한 경계와 새로움을 향한 갈망, 처음 만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한 tvN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에 없던 재미와 감동,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광고 영상은 28일부터 전파를 탔으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현장 메이킹 영상은 30일 오후 7시50분 tvN '명단공개 2014'에서 볼 수 있다. /김지민기자

'졸피뎀 투약' 에이미 불구속 기소

프로포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류 손 대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사진)가 프로포폴에 이어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의 일종으로 장기간 복용 시 환각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 투약해야 한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과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김민아 아나운서 이젠 '골프여신'

'야구여신' 김민아 아나운서(사진)가 '골프여신'으로 변신한다.

김민아는 SBS골프의 간판 골프 레슨프로그램 'SBS골프 아카데미'를 김홍기 프로·나상현 프로와 함께 이끌게 됐다.

'SBS골프 아카데미'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장수 프로그램으로 김민아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방송을 진행한다.

평소 야구 못지않은 골프지식을 뽐냈던 김민아는 "아마추어 골퍼들과 함께 직접 실전에 나서 보다 현장감 있고 생생한 골프의 재미를 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SBS골프 아카데미'는 매주 화·수요일 오후 9시30분에 시작된다. 수요일 진행은 김주형 프로와 서아람 프로, 리포터 안소영이 맡았다. /김지민기자


★★★★★
대박조짐이 보인다! Kms****
1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다! Norh****
기대하고 있었지만 기대 이상. Sham****
간만에 유쾌상쾌 기분좋은
드라마 탄생! tmxm****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오늘 밤 11시 | tvN 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연출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뮤지컬 와이? 마법사와 쫓겨난 임금'

엄마 손 잡고 뮤지컬 나들이

여름방학 맞아 '와이' '로보카폴리' 등 개막

여름 방학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어린이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Why? 마법사와 쫓겨난 임금'이 다음달 4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된다.

6000만부 이상이 팔린 인기 학습 만화 'Why?' 시리즈인 'Why? 쫓겨난 임금'이 원작이다. 에듀컬(에듀케이션+뮤지컬)을 표방해 한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쉬운 구성으로 풀어냈다.

마법 삼총사가 신비의 책인 '와이 책'의 마법에 걸려 과거를 여행하는 내용의 모험극이다. 이들은 고구려 봉상왕, 고려 의종, 조선 단종 등 역사 속 쫓겨난 세 명의 임금을 만나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배운다. 뮤지컬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다양한 효과와 흥겨운 멜로디를 이용해 책 속의 내용을 무대에 구현했다. 문의: 02-3404-9231

PMC KIDS는 여름방학 시즌에 여러 편의 초대형 어린이 뮤지컬을 동시에 선보인다.

'로보카폴리'(다음달 4일부터 8월 31일까지·양재동 한전아트센터)를 시작으로 '보물섬'(다음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어린이 난타'(다음달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양재 The-K서울호텔아트홀)가 차례로 개막한다.

이들 작품의 누적 관객수는 '로보카폴리'가 50만 명, '어린이 난타'가 120만 명, '보물섬'이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문의: 02-738-8289 /탁진현기자

바둑과 액션의 절묘한 조화

바둑 몰라도 재미 선사… 정우성 변신 볼거리

film review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 신의 한 수

다음달 3일 개봉될 '신의 한 수'는 관객의 선입견을 깰 만한 영화다. 소재가 머리 싸움인 바둑이라는 이유로 정적인 영화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역동적인 액션이 절묘하게 조화돼 여름을 겨냥한 오락 영화로 손색이 없다.

'신의 한 수'는 범죄로 변해버린 내기 바둑판에 사활을 건 꾼들의 대결을 그렸다. 전직 프로 바둑기사 태석(정우성)이 형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신에게 형을 죽였다는 누명을 씌운 내기 바둑계의 '절대악' 살수(이범수)를 향해 복수에 나서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맹인 고수 주님(안성기), 생활형 내기 바둑꾼 꽁수(김인권), 외팔이 기술자 허목수(안길강), 내기 바둑계의 꽃 배꼽(이시영) 등 다양한 캐릭터가 적재적소에 배치돼 재미를 선사한다.

바둑을 전혀 몰라도 영화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등장인물이 목숨을 걸고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느끼는 긴장이 배우들의 눈과 손짓, 표정을 통해 오롯이 전해진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기바둑계의 세계도 신선하다. 영화적인 과장이 가미된 것이겠지만 피 튀기는 살육전이 난무한다. 치열한 머리 싸움과 거친 몸 싸움이 완급을 조절하며 펼쳐져 극도의 긴장감을 선사한다.

정우성의 변신도 큰 재미다. 굵은 뿔테 안경과 덥수룩한 수염으로 잘생긴 얼굴을 덮고 어눌하게 말하던 태석이 교도소에서 싸움의 고수로 거듭나는 모습은 마치 슈퍼맨의 변신을 보는 것처럼 짜릿한 쾌감을 준다. 키 187cm의 정우성이 긴 팔과 다리로 펼치는 액션은 그 자체로 화려하다.



'신의 한 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살벌한 악역으로 분한 이범수, 데뷔 50여 년 만에 맹인 캐릭터에 도전한 안성기의 색다른 연기를 지켜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미성년자관람불가.

이문세의 힘! 17만명 동원

27개 도시 투어 '대한민국 이문세' 막내려

가수 이문세의 27개 도시 투어 콘서트 '대한민국 이문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6월 1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5만 관객 매진으로 시작된 투어는 지난 28일 호주 시드니 스테이트 씨어터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문세는 지난 1년 동안 서울·강릉·인천·부산·순천 등 국내 23개 도시와 캐나다 토론토,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저지, 호주 시드니 등 해외 3개 도시에서도 공연을 펼치며 총 17만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지난 28일 시드니 스테이스 씨어터에서 열린 공연엔 2000여 명의 관객이 모여 호주에서 이문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이문세는 애국가를 지휘하며 무대에 등장해 '붉은노을' '소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사랑이 지나가면' '옛사랑' '광화문연가' '이별 이야기' 등 자신의 히트곡을 연이어 불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문세 공연을 기획 제작한 무붕은 "1년간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이문세' 콘서트가 국내와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면서 "이문세의 티켓파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그의 인기가 건재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



'대한민국 이문세'를 공연 중인 이문세. /무붕

'소녀서 성인?' 에프엑스 컴백 앞두고 변신

크리스탈·설리·빅토리아 티저 공개

걸그룹 에프엑스가 멤버별 티저 사진을 공개하며 컴백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크리스탈, 28일 설리, 29일 빅토리아의 사진을 공개하며 궁금증을 재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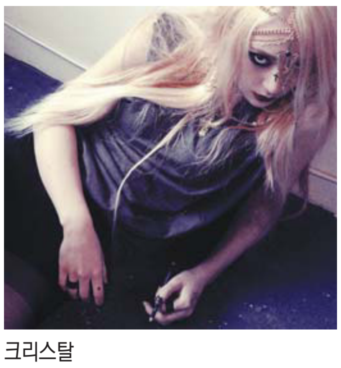
사진 속 멤버들은 부드럽고 귀여운 기존 이미지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드러낸다. 소녀에서 성인으로의 변화가 도드라진다.

크리스탈은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빅토리아는 긴 생머리를 늘어트리고 한쪽 눈을 가린 채 오묘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설리는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긴 생머리를 늘어트린 채 카메라를 돌아보고 있다.

최근 힙합 그룹 다이나믹듀오와 열애설에 휩싸인 설리의 티저는 특히 화제를 모았다. 또 다른 사진에서 설리는 수영복 차림으로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장면을 연기하기도 했다.

에프엑스는 다음달 3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4일 KBS2 '뮤직뱅크', 5일 MBC '쇼! 음악중심', 6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신곡 무대를 공개한다.

정규 3집 '레드 라이트'는 7일 발매한다. /양성운기자 ysw@



크리스탈



설리



빅토리아

실패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



임경선의 모·놀·로·그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6강 진출 실패 후 두 국가대표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남긴 이야기였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벨기에전이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이 '젊은 선수에게 좋은 경험'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번 월드컵은 실패가 맞고, 월드컵에 경험 쌓으러 나오는 팀은 없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안정환은 "실력으로 진 것이라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정신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후배들을 감싸기보다 실패를 직시하고 어설픈 위로를 안 하는 게 좋았다. 그 이전에 그들은 '이겨본' 경험이 있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싶었다. 이겨봤다고 해서 실패를 단순히 질책하거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는 것과 이기는 것 사이에는 진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함을 그들은 시리도록 겪었을 것이기에 그 냉혹한, 아니 당연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축소하진 말자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방송인 코난 오브라이언도 다트머스대학교 졸업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그것이 장차 힘이 되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실패까지 가지 않도록 잘 해야겠지요."

그래, 넌 최선을 다했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타인이 내게 위로용으로 해주는 말로서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나를 향해 던지는 말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안 괜찮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고 자기기만이나 자기연민처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글쓰기에서도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가 착한 일반론이지만 현실은 재능이 뒷받침되어야 노력할 의욕이 생긴다. 일등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아지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말하고 싶었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친부모 이혼, 경제력도 없어 고민 결혼시기 지체… 직장생활 충실토록

Q

syri2000 여자 83년 10월 20일
남자 81년 12월 18일 밤 10시경

안녕하세요. 제 사연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데, 제가 정보를 다소 헷갈리게 적었는지 생년월일을 잘못 해 주셨어요. 기존 내용과 더불어, 남친 부모님은 현재 이혼하셨고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나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좋으나 결혼은 현실인지라 환경, 부모의 영향도 무시 못 하죠… 저도 내세울 건 없지만… 결혼은 저보다 나은 집안의 남자와 하고 싶어요… 저만의 욕심일까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주 속으로 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을 올리실 때 음력 양력 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3년생 10월20일 음력양력 표시는 없군요. 여하튼 오늘 올리신 생년월일은 재물과 남편의 덕은 있으나 속정은 깊지 않다고 다시 언급해야 할 것 같군요. 사람관계는 인연이라 하여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에 다 적용되는 얘기로 상대적입니다. 본인의 사주가 나쁘더라도 상대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어서 좋은 궁합이 됩니다. 그것을 상생의 관계라고 합니다. 복받을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복이 굴러 들어와도 빠져나가버린다고 했는데 이렇듯 복은 주변에서의 인연에서 부터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인데 남자사주에서 포태법상으로 재성(財星:배우자를 나타내는 오행으로 귀하를 칭함)이 하향 길을 걷게 되니 아무래도 2018년까지는 고생해야한다고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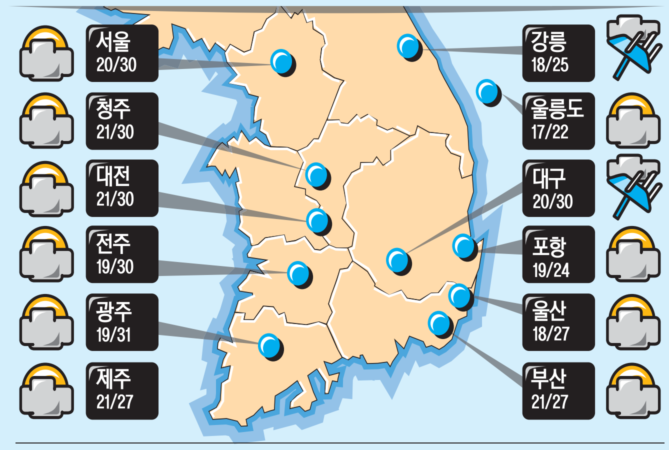
그러기에 아쉽지만 두 분 만남은 조건을 떠나 결혼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둘 중 한분이 지쳐서 이별을 예고하지요. 그래서인지 귀하는 2014년 결혼 운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마십시오. 삶을 하나의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해보세요. 훈련받지 않은 직원을 경영주는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유능한 사람을 보는 시야로 사람을 찾는다면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한 직장을 들어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만하고 발전이 더딘 것 같으나 그 또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가꾸어 가는 교육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장인 관성(官星: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직업 말함)이 상생의 기운으로 가게 되니 당분간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6/30月 일출시각 05:14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환자는 평소 꾸준한 운동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4	6		
			7	3				4
						9		
	3	2	9					7
7	9			6			5	3
5					8	4	2	
		5						
2				8	7			
		7	2	9	5			

						7	6	2
2			6				1	
			1		2	5		
7	9		3	2				
		4		5		2		
				8	6		3	7
		1	7		8			
	5				9			6
3	6	2						

스도쿠 정답

1	7	9	8	2	4	6	3	5
8	5	6	7	3	9	2	1	4
3	2	4	5	1	6	9	7	8
4	3	2	9	5	1	8	6	7
7	9	8	4	6	2	1	5	3
5	6	1	3	7	8	4	2	9
9	1	5	6	4	3	7	8	2
2	4	3	1	8	7	5	9	6
6	8	7	2	9	5	3	4	1

5	1	9	8	4	3	7	6	2
2	7	3	6	9	5	4	1	8
4	8	6	1	7	2	5	9	3
7	9	8	3	2	1	6	5	4
6	3	4	9	5	7	2	8	1
1	2	5	4	8	6	9	3	7
9	4	1	7	6	8	3	2	5
8	5	7	2	3	9	1	4	6
3	6	2	5	1	4	8	7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6월 30일 (음 6월 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기분 좋은 소식이 기다린다. **60년생** 부하와 손발 잘 맞아 유쾌~. **72년생** 뜻밖의 성과에 이미지가 개선된다. **84년생** 일은 가닥이 잡히면 화력 집중하라.

소: **49년생** 집안일 중책 피하지 말라. **61년생** 직장인은 중책이 맡겨진다. **73년생** 권한을 나눠서 상생의 길 모색할 것. **85년생** 독주하면 적은 생기기 마련이다.

호랑이: **50년생** 남의 일로 바빠진다. **62년생** 내일위해 여유 있어도 허리띠 졸라매라. **74년생** 어려웠던 사람은 기세가 살아난다. **86년생** 결점을 발견했으면 빨리 보완할 것.

토끼: **51년생** 생색내기 선심은 금물~. **63년생** 집안에 드리운 먹구름은 걷힌다. **75년생** 친구의 고생 나 몰라라 하지 말라. **87년생** 동료 충고 그냥 지나치면 후회한다.

용: **52년생** 귀한 손님 접대할 일 생긴다. **64년생** 하고 싶은 일은 방향성이 중요~. **76년생** 현실에 충실해야 살아남는다. **88년생** 애정표현도 속도 조절해야 효과~.

뱀: **53년생** 반응이 엇갈려도 신경 쓰지 말라. **65년생**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77년생** 뜻밖의 이득이 생겨서 야호~. **89년생** 실수도 곱씹어 보면 약이 된다.

말: **42년생** 자녀가 생각도 못한 희소식 전한다. **54년생**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66년생** 편견은 또 다른 벽을 만든다. **78년생** 화가 나도 상사의 역린 건드리지 말라.

양: **43년생** 일을 맡길 적임자 없어 답답~. **55년생** 나답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67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마라. **79년생** 좋은 머리보단 따뜻한 심장이 필요하다.

원숭이: **44년생** 외출하면 눈과 입이 즐겁다.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잡아라. **68년생** 기계적인 친절은 되레 독이 된다. **80년생** 나쁜 흔적 남기지 않도록 신경 써라.

닭: **45년생** 말 못할 고민이 생겨 휴~. **57년생** 그리운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 **69년생** 운세가 열렸을 때 더 큰물로 뛰어라. **81년생** 프러포즈나 이성에 대시하면 성과 거둔다.

개: **46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58년생** 알리고 싶은 일만 공개할 것. **70년생** 매사 소극적인 사람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82년생** 급해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 마라.

돼지: **47년생** 자녀의 동아줄 역할 더 이상 말라. **59년생** 주머니는 비어도 마음은 부자다. **71년생** 진정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할 것. **83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브라질 4강 진출 먹구름

간판스타 네이마르 허벅지 부상 '비상'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이 남미의 복병 칠레를 누르고 8강에 선착했지만 간판스타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의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브라질은 29일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첫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칠레를 물리치고 8강에 올랐다. 연장전까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브라질과 칠레는 승부차기에서 3-2로 승패를 결정지었다.

그러나 이날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선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해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경기서 네이마르는 풀타임 활약하며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승부차기에서는 마지막 키커로 나와 골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경기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브라질 감독이 네이마르의 부상 소식을 알렸다. 스콜라리 감독은 "네이마르가 허벅지를 걷어차이며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며 "상태를 봐야겠지만 사흘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다음달 5일 오전 5시 16강전서 우루과이를 2-0으로 꺾고 올라온 콜롬비아와 8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만일 현재 4골을 터뜨리며 이번 대회 득점 순위 공동 2위인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이탈한다면 브라질과 이번 대회 전체에 큰 손실을 끼칠 전망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29일 칠레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승부차기에서 2-2를 기록한 상황에서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킨 뒤 팀 동료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수아레스(오른쪽) /AP 연합뉴스

수아레스 "물려는 의도 없었다"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7·리버풀)가 상대 선수를 깨문 것에 대해 해명했다.

29일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수아레스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기 전인 26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절대로 상대를 물거나 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소명했다.

그는 "충격 이후에 나는 균형을 잃었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 상대 선수의 상체 위로 넘어졌다"면서 "당시 나는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맞아 볼에 작은 멍이 생겼고 치아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썼다.

수아레스는 이탈리아와의 대회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유벤투스)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FIFA 징계위원회에 속한 7명의 위원은 수아레스의 이러한 소명에도 "고의적이며, 의도적이며 상대 선수의 도발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결국 FIFA는 수아레스에 대해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에 처하고 4개월간 모든 축구 활동을 금지했다. /양성운기자



알제리 /AP 연합뉴스



독일 /AP 연합뉴스

독일 알제리 32년 만의 리턴매치

악연을 가진 두 팀이 32년 만에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 축구 대표팀이 1982년 스페인 대회 조별리그에서 서독에 패배를 안겼던 아프리카의 복병 알제리를 내달 1일 상대한다.

독일의 전신인 서독과 알제리가 최근 국제무대에서 치른 경기는 1982년 6월17일에 열린 스페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이었다.

칼-하인츠 루메니게가 버틴 서독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월드컵에 처음 발을 디딘 알제리의 2-1 승리였다. 알제리는 2차전에서 오스트리아에 0-2로 패하며 주춤했으나 3차전에서 칠레를 3-2로 따돌리고 2라운드 진출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3차전이 두 팀이 승부조작에 가까운 졸전 끝에 서독의 1-0 승리로 끝나면서 알제리의 계획이 틀어졌다.

세 팀이 나란히 2승1패를 기록했고, 골 득실에서 밀린 알제리는 울분 끝에 짐을 싸야 했던 것이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이 동시에 치러지도록 조정하는 계기가 됐다.

32년 전 조별리그 통과를 놓고 치열한 혹은 치졸한 대결을 벌였던 알제리와 독일은 이제 8강을 놓고 단판 승부를 펼친다.

'아트사커'의 부활을 외치는 프랑스는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조별리그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갈 호기를 맞았다. /양성운기자

'신성' 제임스 로드리게스 '골!골!'

5골 단독 선두… 콜롬비아 8강 이끌어

콜롬비아가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가 빠진 우루과이를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콜롬비아는 2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전에서 2골을 넣은 제임스 로드리게스의 활약에 힘입어 우루과이에 2-0 승리를 거뒀다. 앞서 4차례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콜롬비아는 1990년 이탈리아에서 16강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대회 직전 간판 골잡이 라다멜 팔카오가 부상으로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돼 심각한 전력 손실을 입었지만, 로드리게스가 빈자리를 대신하며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특히 잘생긴 외모에 '남미의 호날두'로 불리는 로드리게스는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첫 월드컵에서 월드스타로 등극했다. 로드리게스는 총 5골로 토마스 뮐러,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이상 4골) 등 특급 골잡이를 제치고 득점 선두로 나섰다.

로드리게스는 전반 28분 아벨 아길라르의 패스를 가슴으로 받아 트래핑한 후 왼발 터닝슛으로 첫 골을 터뜨렸다. 후반 5분에는 후안 콰드라도의 헤딩 패스를 오른발 슛으로 연결시켜 추가골을 넣었다. 수아레스가 빠진 우루과이는 단조로운 공격 끝에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콜롬비아는 이날 칠레를 승부차기 끝에 꺾은 브라질과 다음달 5일 4강행을 놓고 대결한다.

/유순호기자 suno@



제임스 로드리게스. /AP 연합뉴스

한국 축구 2002년 이전으로…

무승,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16년만
2018 러시아 월드컵서 '황금시대' 열릴까



선수들과 포옹하는 홍명보 감독. /연합뉴스

한국 축구가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통산 9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에서 1무2패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본선 조별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것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다. 한국 축구가 과거의 '들러리' 신세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1954년 스위스 대회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은 1998년 프랑스 대회까지 5번 월드컵에 나가는 동안 1승도 챙기지 못했다.

◆ 몸에 밴 습관 버려라

한국과 벨기에의 조별리그 H조 3차전의 경기는 선수간 기본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일단 볼을 패스 받는 자세다. 벨기에 선수들은 물론 유럽 선수들은 대부분 후방에서 패스를 받을 때 전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을 돌린다. 볼을 잡는 순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볼을 안전하게 잡고 주변 선수를 확인한다. 역습을 준비하는 다른 선수들의 템포를 잃게 만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습관은 어린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결국 유소년 시절부터 철저한 기본기 습득은 물론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재능 있는 선수의 집중적 육성이 절실하다.

축구협회는 지난 3월 유소년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 축구 기술 습득이 가장 쉬운 연령대인 8~15세 선수를 발굴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상비군의 풀을 확대하고 대표선수 선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압박·스피드·체력 실종'

한국 축구가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무승(1무2패)의 최악 결과를 낳은 원인은 끈질긴 압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며 '4강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전통은 2006년 대회와 2010년 대회까지 이어지며 한국 축구의 색깔이 됐다.

홍명보호는 지난해 7월 본격 출범하면서 '한국형 전술-한국형 플레이'를 천명했다. 홍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우리 선수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출범 이후 브라질 월드컵까지 치르면서 '홍명보 축구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 축구에서 필수적인 빠른 역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압박도 눈에 띄지 않았다.

홍 감독도 선수들의 체력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물론 월드컵 준비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해야 하지만 짧은 기간에 별다른 색깔 없이 해외파 선수들의 이름값에 기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4년뒤 '황금세대' 나올까

이제 목표는 4년 뒤 2018 러시아 월드컵이다.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단점이 많이 노출됐다.

다만 대표팀의 주축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이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홍명보호 23명 가운데 13명은 4년 뒤 축구선수로서의 재능이 꽃을 피울 나이인 20대 후반이 된다.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의 영광과 이번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를 두루 맛본 이들이 앞으로 4년간 소속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면 한국 축구의 새로운 '황금세대'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의 김승대(포항), 윤일록(서울), 장현수(광저우 부리) 등의 존재도 희망을 품게한다. 또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뛰는 이승우(16), 백승호(17), 장결희(16) 등도 한국축구의 희망이다. 이번 대회에서 커다란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레버쿠젠) 만큼만 성장해준다면 4년 뒤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톱타자 복귀' 추신수 2경기 연속 멀티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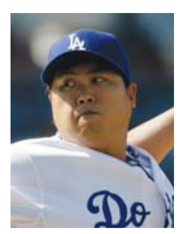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 오른쪽)가 1번타자 복귀 후 연이틀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추신수는 29일 미국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 1번 좌익수로 나와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2경기 연속이자 시즌 19번째 멀티히트(1경기 2안타 이상)다.

팀 사정상 3번 타순에 배치됐다가 21일 만인 전날 다시 톱타자로 나서 3안타를 터트리고 팀의 8연패 탈출에 앞장섰던 추신수는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달성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55(267타수 68안타)로 올랐다. 출루율도 0.372에서 0.374로 약간 높아졌다.

텍사스는 미네소타를 5-0으로 누르고 8연패 뒤 2연승을 거뒀다. /양성운기자

류현진 클리블랜드 상대 10승 도전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아쉬운 패배를 뒤로하고 10승에 재도전한다. 상대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다.

다저스 구단은 29일 홈페이지에 내달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3위 클리블랜드와 치를 미국프로야구 홈 3연전의 선발 투수를 예고했다.

류현진은 로테이션대로 댄 해런, 조시 베켓에 이어 내달 3일 오전 4시10분부터 열릴 3연전의 마지막 경기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15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라 9승 4패, 평균자책점 3.12를 기록 중이다.

28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경기에서는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하고도 시즌 4패째를 당해 아쉬움을 남겼다. 류현진이 7이닝 동안 9피안타, 탈삼진 7개를 기록하며 3실점만 했지만 다저스는 어설픈 외야 수비로 내준 점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결국 1-3으로 졌다.

류현진은 나흘을 쉬고 다시 10승 사냥에 나선다. /양성운기자

프로야구 전적 29일

■ 포항

한화	000	002	000	2
삼성	024	110	10X	9

△승 = 밴덴헐크(8승 2패) △패 = 조영우(1패) △홈런 = 김경언 1호(6회1점) 피에 5호(6회1점·이상 한화) 이승엽 17,18호(2회2점, 3회2점) 나바로 18호(3회1점·이상 삼성)

■ 잠실

넥센	100	113	100	7
두산	000	000	000	0

△승 = 밴헤켄(10승4패) △패 = 볼스테드(4승6패)

■ 문학

L G	010	152	200	11
S K	220	000	00X	4

△승 = 신재웅(4승 1패) △패 = 여건욱(2패) △홈런 = 정성훈 5,6호(2회1점, 4회1점) 정의윤 6호(7회2점·이상 LG) 임훈 2호(2회2점·SK)

■ 사직

N C	000	000	000	0
롯데	000	180	00X	9

△승 = 장원준(7승 4패) △패 = 찰리(6승 4패) △홈런 = 전준우 7호(4회1점) 손아섭 7호(5회2점·이상 롯데)



Ocean in Heaven Maldives!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인도양의 바다에서 무엇이든 할 자유와 무엇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완벽한 곳, 일상에서 벗어나 **완벽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몰디브에서 **럭셔리 리조트의 진수**를 느껴보세요!



몰디브 6일/7일/8일

지탈리 리조트 슈퍼 디럭스 아쿠아빌라 위드풀

3,020,000부터 ▶ 6월부터 매일출발

- 몰디브(4/5/6)
- 대한항공, 싱가폴 항공, 카타르 항공 탑승
- 리조트 전식 포함, 와인 1병 제공



몰디브 6일/7일/8일

더레지던스 리조트 워터빌라

2,790,000부터 ▶ 6월부터 매일출발

- 몰디브(4/5/6)
- 대한항공, 싱가폴항공, 카타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탑승
- 출발 60일전 예약 및 객실 확정시 리조트 전일정 조식+석식 무료 제공
- 출발 90일전 예약 및 객실 확정시 워터풀빌라 무료업그레이드 (객실가능시/10월31일 이전 투숙객까지 한정)
- 올인클루시브 추가(유료) 가능



몰디브 6일/7일/8일

럭스 리조트 워터빌라

2,240,000부터 ▶ 6월부터 매일출발

- 몰디브(4/5/6)
- 대한항공, 싱가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탑승
- 스타라이트 크루즈/커플 맛사지/프라이빗 비치 조식 1회 제공
- 리조트 석식 무료포함, 하우스리프 스노클링 트립 무료 포함